



충현교회 55년사

(1953 - 2008)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충현교회 55년사

(1953 - 2008)

「충현교회 55년사」는 충현교회의 자취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충현교회 55년사」는 주님 앞에 범했던 죄들을 낱알이 회개한다

「충현교회 55년사」는 십자가에 기초한 주님의 교회를 소망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가족과 이웃, 사회와 민족이 십자가로 하나되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온 땅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소외받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 사랑



목 차

4 | 발간사

6 | 충현교회 연혁

- 1953-1963 설립과 도약
- 1964-1973 조직과 성장
- 1974-1983 건축과 확장
- 1984-1996 시련과 극복
- 1997-2008 십자가와 부흥

41 | 부록

- 충현교회 목표의 변천
- 충현교회 5대 목표 해설
- 2009 당회원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2:36)

1953년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간 외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복음의 빛은 흐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는

‘한국의 장자교회’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명료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외식과 위선, 변명과 핑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히 깨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충현교회 55년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충현교회 55년사」를 통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계속해서 매달아 놓은 채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용하여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며 인간을 자랑하려 했던 우리의 악함을 낱알이 회개합니다.

「충현교회 55년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충현교회’라는 이름만을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난 죄인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온 땅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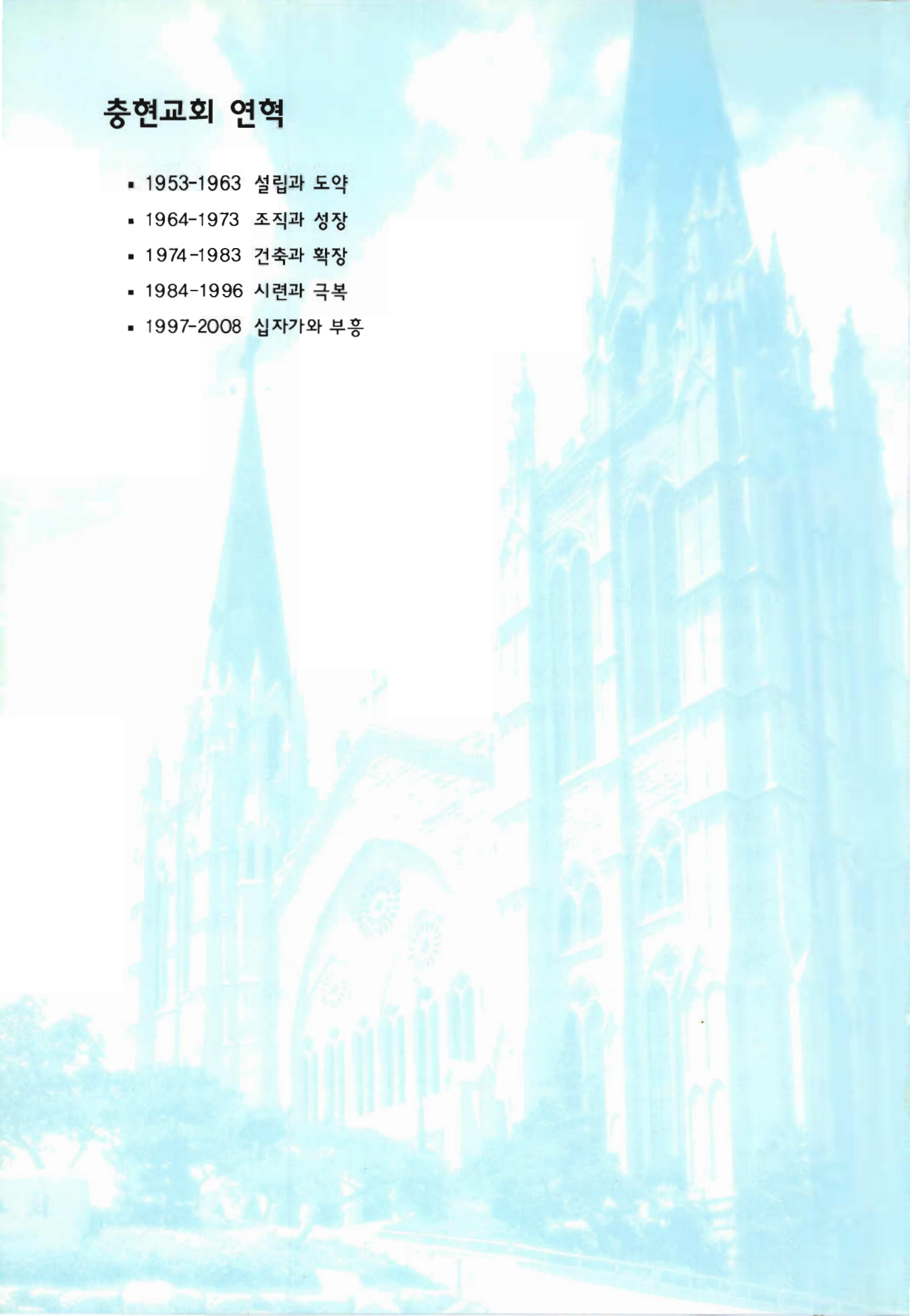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2009년 6월, 「충현교회 55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당회서기 노광현 / 충현교회 55년사 편찬소위원 : 김영달 원응철 정선현 안석현 양기수 양재웅

충현교회 연혁

- 1953-1963 설립과 도약
- 1964-1973 조직과 성장
- 1974-1983 건축과 확장
- 1984-1996 시련과 극복
- 1997-2008 십자가와 부흥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1)

1953~1963

설립과 도약

1953. 9. 6.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소재한 한명덕 집사의 집 2층에서 총 1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다.

1953. 9. 12.

김창인 조사(전도사) 취임하다.

1953. 10. 26.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번지로 교회 이전하다.(건평 14평)

1953. 10. 28.

교회 이전 후 첫 수요예배를 드리다.(대지 310평, 건평 19평)

1953. 12. 12.

교회 본관 건물을 착공하다.(연건평 291평, 예산 3,600만원)

1954. 10. 15.

성전 건축 착공 및 기공예배를 드리다.
장리영 집사가 시멘트 200부대를 기부하여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다.

1954. 11. 21.

청년성가대를 조직하다.

1955. 6. 13.

부산 미군 후방기지 사령관인 메이커 소장으로부터 15,000달러 상당의 자재를 약속받아, 시멘트 1,001부대 등 기타 건축 자재 일체를 인수받다.

1955. 6. 14.

교회 건축이 재개되다.(1954. 12. 1에 있었던 정초예배 후 6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하다)

1955. 8. 15.

정식으로 본당 건물을 착공하다.



교회 임시건물(천막)



교회 신축 현장



성전건축



초기 성가대

1955. 12. 17.

본관 준공 예배를 드리다.(공사기간 736일)

1956. 1. 1.

남전도회를 조직하다.

1956. 1. 15.

청년회를 조직하다.

1956. 6. 3.

대학생회를 조직하다.

1956. 8. 12.

제직회에서 교회명을 동일교회에서 충현교회로 바꾸다.

동일교회(東一敎會)에서 충현교회(忠峴敎會)로 바뀌게 된 이유는 당시 이단이었던 통일교와 교회 이름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회가 있던 충무로의 '충'자와 인현동의 '현'자를 각각 따서 충현교회로 개명하다.

1958. 9. 30.

-성전 건축 낙성식을 하다.(연건평 294평)

-김창인 목사 위임받다.

1961. 3. 7.

별관 건물을 착공하다.

1961. 5. 16.

3층 슬라브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고 내부 미장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5·16혁명이 일어나 계엄령이 선포되어 교회 공사 전반이 통제되어 지장을 받다.

1961. 9. 28.

별관 완공하다.(지상 4층, 연건평 180평, 총 공사비 약 3,000만원)

1963. 1. 1.

『대학생회』를 『청년회』로 개칭하다.



첫 주보



중·고등학생회 첫 졸업식



초기 주일학교

1963. 1. 5.

-중학생 면려회를 조직하다.

-고등학생 면려회를 조직하다.

1963. 9. 2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입하다.

6·25 전쟁(1950. 6. 25.~1953. 7. 27.)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폐허로 변해버린 국토 앞에서 망연자실하였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고, 삶의 터전이 흙더미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곳에도 복음은 여전히 환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소망을 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앞날을 주도하였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빛이 한국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폐허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 빛의 통로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셨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참 소망의 빛을 비추었던 것이다. 충현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설립되었다.

첫 세례식을 베풀고, 초대 당회를 조직하고, 성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워낙 방대한 사업으로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염원은 컸으나 마음껏 헌금할 수 없어 교우들은 안타까움으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전쟁은 끝났으나 사회 전반이 침체되어 많은 교우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우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특별헌금과 수시헌금을 드렸지만 실제로 건축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건축 공사는 중단되었다.

막막하던 성전 건축은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부산 미군 후방기지 사령관 메이커 소장의 미화 15,000달러의 헌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이 성사 되기까지 미8군 군목과에 근무하던 정현경 양의 공헌이 컸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담대하게 교회의 사정을 호소하였고, 주님은 적절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모든 상황은 불가능했지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셨다. 더불어 온 성도들이 직접 교회 건축에 참여했고, 학생들도 함께 교회를 지어갔다.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었다.

1958년 9월 30일, 성전 건축 낙성식을 하며 교우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 5년 전, 불에 타 황폐해진 그곳에 우뚝 선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 무한히 뻗어 나갈 가능성이 갖추고 충현교회는 그곳에 터전을 굳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4)

1964~1973 조직과 성장

연

행

1964. 1. 3.

청년성가대에 「성가부 후원회」를 조직하다.

1964. 8.

필동구역의 문익태 집사가 경기도 광주군에 약 7만 평의 임야를 교회에 헌납하다.(이 임야는 입지가 좋지 않아 매각하여 교회 묘지 기금으로 삼고, 「교회 묘지 구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교회 묘지를 구상하는 계기가 되다.)

1965. 1. 1.

-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다.

- 제직회 부서에 「선교부」를 신설하다.

1965. 7. 25.

「교회 묘지 구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1966. 3. 1.

여성성가대(호산나 찬양대 전신)를 발족하다.

1967. 1. 1.

- 「기획위원회」를 신설하다.

- 제직회 부서에서 「선교부」를 폐지하여 「전도부」에 흡수하다.

1967. 3. 12.

- 「충현」의 전신인 「충현주교」를 월간으로 창간하다.(16절 크기, 8쪽)

- 「충현주교」는 제4권 제8호, 통권 36호로 1970. 12. 20에 중단하고, 1972. 4. 30부터 교회 기관지로 바뀌어 「충현」이라는 제호로 발행되다.

1968. 1. 1.

- 유년부와 초등부를 완전 분리하다.

- 중등부 회지 「실로암」을 매년 발행하다.



여성성가대 발족



청년성가대



「충현주교」 창간



주일학교

1968. 7. 14.

「해외복음선교회 창립발기회」를 조직하다.

1968. 9. 15.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교회 묘지
용도 43,530평을 매입하다.

1968. 10. 6.

「충현동산 관리위원회」가 발족하다.

1968. 10. 20.

「새 성전 건축」을 계획하다.

1968. 12. 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2,000평
규모의 사설 묘지 허가를 받다.

1969. 4. 20.

안수집사 제도를 실시하다.(안수집사 10명 선
출)

1970. 11. 15.

새 성전 건축지 9,000평을 매입하다.(약 1억
원 소요)

1971. 1. 1.

교회 구역을 동구, 서구에서 동구, 서구, 중구
로 분할하다.

1971. 9.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계획이 공
포되어 역삼동에 걸쳐 6,067평 4호의 단일경
내의 환지가 확정되다.

1972. 4.

「충현동산 재단법인」 허가신청을 보건사회부
에 제출하여 1972. 12. 16.에 허가받다.



여름성경학교



남전도회원 노방전도



도서실

1972. 4. 30.

교회 기관지 「충현」 창간호를 발행하다.(16쪽,
연 4회 발행)

1972. 12. 16.

「재단법인 충현동산」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제1545호)를 받다.

조

직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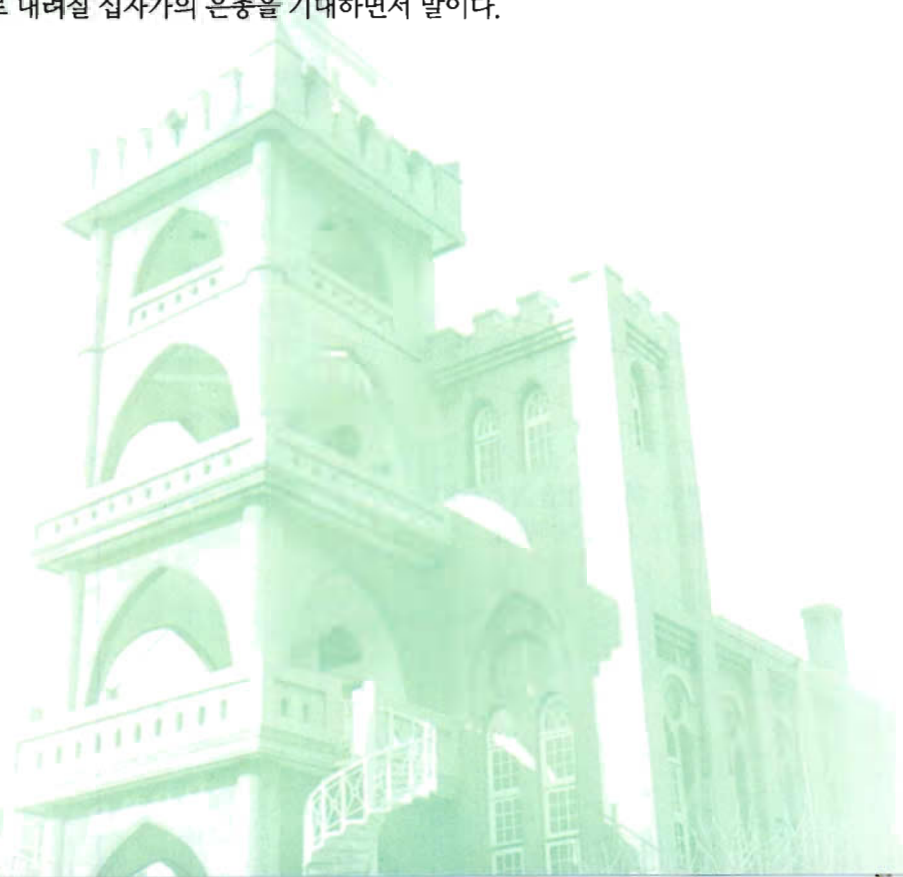
성

장

충현교회는 외적으로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갔다. 이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다. 당시 불안했던 사회와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을 막을 길이 없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대하 20:9).

교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였고 건물도 증축하였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으며 국내 전도 및 해외 선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시도하였다. 교회의 조직은 더욱 든든해졌고, 양적으로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에 치중한 교회는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주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 중심의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6).

그럼에도 주님의 섭리는 놀라울 뿐이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교회의 냉대와 천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체제화되고 성장해 가는 중심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모든 역사는 한 개인이나 몇몇의 성도들이 이루어 낸 성과가 아니라, 오직 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망이 담긴 성령의 역사였다. 결국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 가시는 주님의 자취 속에서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 앞으로 내려질 십자가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 1:38)

1974~1983

건축과 확장

1974. 6. 23.

「충현교회」 영문 표기를 「Chunghyeon」으로 정하고, 명칭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통일하다.(1989년부터 Choonghyun으로 변경하다)

1974. 9. 20.

「재단법인 충현동산」 법인업무 전반에 관한 보사부 사무감사를 받는다.

1975. 4. 13.

권사회 창립 총회를 갖다.

1975. 5.

선교회관 건축설계도가 완성되다.
경남기업의 안정길 기사, 해외 복음선교 회관 건축을 위해 한국 최초로 「한국 해외선교 회관」 건축을 착수하다.

1975. 6. 19.

선교 회관 건축 기공식을 갖다.

1976. 3. 4.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수양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다.(4,000평)

1976. 11. 4.

당회는 동, 서, 남, 북 4개 지구를 제1, 2, 3, 4, 5지역 5개 지구로 개편하다.

1976. 12. 6.

경기도 광주군 대쌍령리에서 충현기도원 시공예배를 드리다.(예배실 230평, 기도실 100평 외 연건평 780평)

충현기도원은 권사회 주도로 건립하다가 규모가 커져 교회건축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1976년 12월 말까지 정리 작업을 끝내고 착공하여 197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다.

1977. 3. 2.

「충현 출판위원회」를 조직하다.

1977. 4. 29.

「북한선교회」를 창립하다.



찬양하는 청년들



전도팀 구성



권사회 창립



충현기도원 완공

1977. 8. 23.

새 성전 신축부지가 시 구획정리 구역동결에서 1,695평이 우선 해제되다.

새 성전 건축부지가 시 구획정리 구역으로 묶여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시장 면담 및 시 당국에 건의와 진정을 하다.

1978. 5. 28.

새 성전 기공예배를 드린다.

1978. 6. 1.

충현기도원 완공으로 봉헌예배를 드린다.

1978. 6. 2.

새 성전 건축부지가 시 구획정리 구역동결에서 전면 해제되다.

그 후 "시 당국의 구획정리법에 있는 행위공사를 완료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즉시 행위공사 허가를 1978년 11월 18일 토목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대지정지공사를 1978년 말까지 완료하여 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다.

1980. 2. 14.

새 성전 건축허가가 나다.

1980. 4. 6.

새 성전 공사를 위해 정우개발주식회사와 1차 공사를 체결하다.

1차 공사 : 본당, 교육관 골조공사 및 지붕

1980. 4. 8.

새 성전 착공예배를 드린다.

1,000여 명 참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980. 9. 17.

새 성전 공사 1차 기성 8억 원 지불하다.

1980. 12. 20.

새 성전 1차 기성 건축비 지불 후 공사 진도에 따라 5억 원 지불하다.

1차 기성 : 1980. 9. 17. 8억 원

2차 기성 : 1980. 12. 20. 5억 원

3차 기성 : 1981. 3. 20. 3억 원

4차 기성 : 1981. 4. 30. 3억 원



새 성전 조감도



건축 초기

5차 기성 : 1981. 5. 30. 3억 원

6차 기성 : 1981. 7. 30. 3억 원

7차 완공물 : 1981. 10. 15. 잔액 지불 예정

1981. 1. 6.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김기정(건축위원장), 노광현(현장 총감독), 오진국, 최환(기술감독)이 출국하다.

3차 외벽 돌공사부터 건축 관계자 교체(건축위원장 임광식, 부위원장 최석주, 현장 총감독 이정우)

1981. 11. 12.

새 성전 건축 상량예배를 드린다.

1980년 4월 8일 착공예배 후 1년 7개월 만에 상량예배를 드린다.

1982. 9. 30.~10. 8.

제2차 공사를 위한 건축공사는 남도건설주식회사, 설비(냉난방 급배수 위생공사)는 남양설비주식회사, 전기공사(약정, 강전)는 한원전기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다.(2차 공사 시 교육관, 선교센터 건축)

건

축

과

확

장

충현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교회는 성장하였고, 성경교육을 위한 주일학교도 활성화되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왕하 19:31). 특히 늘어나는 성도들이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성전을 준비해 왔기에 역삼동에 위치한 새 성전 기공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충무로에서 2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삼동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교회는 성전 건축에 전념하였다. 또한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한 충현기도원도 완공되어 교회는 복음을 위한 그 지경을 한층 더 넓히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충현교회에게 기회를 주셨고, 충현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 건축과 확장에만 신경을 쏟았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교회는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만 모든 힘을 쏟았다. 겉으로 교회 건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했고, 교회 내 부서들도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였으나 감추어진 문제들이 많았다. 특히 건축 허가상의 문제가 많아 1979년 초에는 정부의 건축불허 통보까지 받아 교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당회원이 24시간 연속기도를 건의하였고, 이 안이 받아들여져 온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을 시해하는 10·26 사태가 일어났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건축불허를 받은 새 성전 부지가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급기야 1980년 2월, 새 성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4시간 연속기도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나 성전 건축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못하였다.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 착오와 중상 모략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본당 외벽 돌공사였다. 외벽 돌공사는 안전한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가 여지가 많았다. 결국 성전 외벽은 완공 후 15여 년 뒤부터 외벽에 붙인 돌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인명 피해를 낼 뻔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당 전체 외벽 돌공사를 2007년 3월부터 재시공하기로 하여, 2년여에 걸쳐 약 8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비하였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영혼 구원이 방주와 십자가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생각보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한 개인의 영리와 교회 주도권 싸움에 몰두하여 성전의 부실 공사를 초래하였다.

당시 새 성전 건축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 관심은 충현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 외의 것들로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며 교회의 위상만을 높이려 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개와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기도밖에 없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의 겉모습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다.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시 4:2).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벧전 1:6)

1984~1996 시련과 극복

1984. 1. 2.

- 교회 조직을 개편하다.
- '지구'를 '교구'로 명칭을 바꾸고, 10개의 교구로 확대 개편하다.
- 주일학교를 나누다.
- 1부(영아부, 유치부)
- 2부(유년부 1~2학년, 초등부 3~4학년, 소년부 5~6학년)
- 3부(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 4부(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소망부)
- 세례부, 기획조정실, 성가위원회가 신설되다.

1984. 4. 1.

통일찬송가를 사용하다.

1984. 4. 15.

충무로 성전에서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다.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30에 소재한 성전은 철거되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1953. 9. 6. 이후 31년간 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1984. 4. 16.

새 성전의 일부(교육관, 선교관)가 완공되어 충무로에서 역삼동으로 이전하여 입당예배를 드리다.

1984. 4. 21.

- 새 성전 선교관, 교육관 준공 감사예배를 드린다.
- 제2차 공사 준공, 갈릴리홀 입당예배 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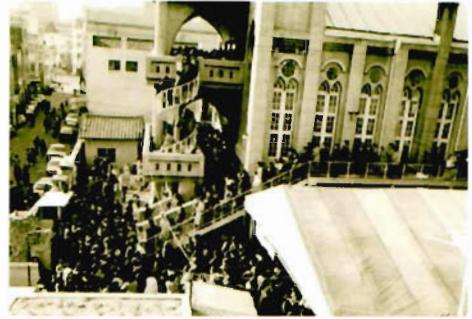
1985. 5.

교구별로 운영되던 교회버스를 폐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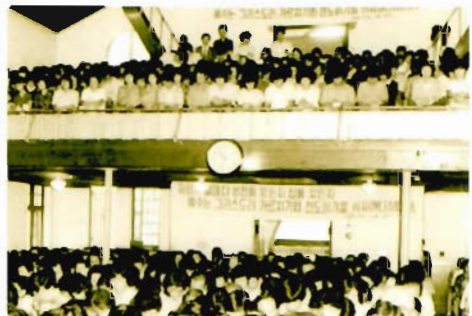
1986. 4. 8.

제3차 공사 착공예배를 드리다.

1969년 12월 새 성전 신축부지 9천평 매입
제1차 공사 1980년 4월~1982년 8월 완료
(정우개발주식회사)
제2차 공사 1982년 9월~84년 4월 완료
(남도건설주식회사)
82년 3월 교회 이전, 85년 4~11월 부대공사 완료
86년 4월 7일 제3차 공사 착공(흥화공업주식회사)



주일예배 후



충무로 성전에서의 마지막 주일예배



새 성전 일부 완공 입당예배



입당예배

1986. 12. 28.

공동의회에서 북한선교회를 독립단체로 분리
결의하다.(이사장 김창인 목사)

1987. 4. 19.

공동의회 당회장 후임에 이종운 목사 청빙하다.

1987. 7. 12.

제3차 내장공사 완료하여 1978년 5월 25일,
새 성전 대지 기공예배 후 9년 만에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다.

1987. 12. 31.

김창인 목사 정년 은퇴하다.(1953. 9. 6.~1987.
12. 31.)

1988. 4. 21.

이종운 목사 위임예배 드리다.

1988. 6. 1.

수요예배가 2부로 실시되다.
1부 오전 11시, 2부 저녁 7시

1988. 8. 19.

교구위원회 총회 및 14개 교구로 확장하다.

1988. 8. 28.

- 영어예배부 신설하다.
- 핸드벨콰이어 창단하다.

1988. 12. 20.

제3차 공사 준공, 본당 새 예배당 봉헌하다.

8년 8개월 12일간 공사 마무리되다.

대지면적 : 19,944㎡(6,432평)

공사기간 : 제1차 공사 1980. 4.~1982. 9.(25개월)

제2차 공사 1982. 10.~1984. 4.(19개월)

제3차 공사 1986. 4.~1988. 12.(33개월)



중흥부의 작은 음악회



성경 암송하는 유치부 어린이



본당 외벽 돌공사



본당 새 예배당 봉헌

1989. 3. 4.

〈주간충현〉을 창간하다.

1989. 3. 16.

충현영빈관 개관하다.

선교관 5층에 위치하며, 이용 대상은 국내외 선교사, 목회자, 국내외 초청 인사

1990. 6. 20.

- '사랑의 집'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다.

사랑의 집 건축면적 1,086평, 대지면적 362평, 지하 4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다.

- 홍해작전 승전기념 돌 성경을 봉헌하다.

1990. 10. 10.

제2목양관(교역자 사택) 신축 기공예배 드리다.

강남구 역삼동 667-27, 대지 114.72평, 연건평 199.11평 4층, 10세대

1990. 12. 30.

청년층 부흥을 위해 교회학교 편제를 변경하다.

1991. 3. 6.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을 인가하다.

1991. 8. 8.

비전 2000 기념비 제막식을 갖다.

1991. 9. 2.

'사랑의 집' 착공예배를 드리다.

1991. 9. 17.

이종운 목사를 사면하다.(1987. 4. 19.~1991. 9. 17.)

1991. 10. 13.

신성종 목사 청빙을 가결하다.

1991. 10. 17.

- 신성종 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리다.



〈주간충현〉 창간



교역자 사택인 제2목양관



돌 성경



비전 2000 기념비

-임시당회에서 당회원들은 이중윤 목사 사면
건을 회개하며 자진 근신(10, 20, ~11, 30.)
하기로 결의하다.

1991. 12. 23.

신성종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다.(수도노회)

1992. 1. 5.

-인쇄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다.
-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실시하다.

1992. 5. 8.

'충현금요찬양'을 시작하다.

간중 중심으로 진행되던 금요특별집회가 찬양집회로 바
뀐다.

1992. 7. 1.

-18개 교구에서 22개 교구로 증설. 개편을 단
행하다.

- '교정전도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교도소 전도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다.

1992. 10. 2.

묘지 조성을 위한 동산 기공예배를 드리다.

충현 제2동산을 1만4천명의 산림훼손 허가, 대지 7천평
조성

1993. 3. 10.

충현봉사관을 헌당하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건물로 자매아들을 위한 조
기 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를 위한 행사 장소, 기독
교 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지역민의 비정치적·비영리
적 집회 장소로 사용하다.

1993. 11. 16.

충현 제2동산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다.

1994. 3. 9.

제2교육관 기공예배를 드리다.



소년부 학생들의 연극 장면



성도들의 교제 모습



충현동산



충현봉사관 헌당

1994. 6. 8.

충현동산 이장 및 매장관리 규정을 개정하다.

1994. 10. 30.

교구 개편을 하다.

13개 대교구와 국제 교구, 27개 소교구로 운영, 교구목사 1명, 여전도사 2명

1994. 11. 16.

충현 제2동산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다.(경기도 광주군 목현리)

1994. 12.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서 동서울노회로 이명하다.

1995. 6. 22.

충현복지관 개관예배를 드리다.

1995. 10. 19.

신성종 목사를 사면하다.(1991. 10. 17.~1995. 10. 19.)

1996. 1.

- 교회조직 일부를 통합 변경하다.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 예배위원회
1교육위원회, 2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교구위원회, 새가족위원회 → 교구위원회
행정위원회, 기도원 → 행정위원회
교육훈련원, 도서관학회, 충현상담실 → 교육훈련원
감사위원회 → 감사실
건축위원회 → 2교육관 건설부
기획실, 충현출판사 → 기획실

- 교구 관할지역 일부를 변경하다.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제12, 13교구(경기도)는 인접 교구로 편입하다.
경기도 행정구역상으로 편성된 제12, 13교구를 한강 이북 지역은 서울 인접 교구에 편입, 기타 신개발도시 중심으로 교구를 편성하다.



교구 모임



핸드벨 연주대



충현복지관

1996. 6. 23.

제2교육관 주차장을 완공하다.(지하 1~4층, 약 300대 주차 가능)

1996. 9. 30.

충현동산 관리동 신축공사를 착공하다.
경기도 광주군 광죽읍 목현리 173-1, 173-3, 연건평 약 500평의 2층 건물

교회는 마무리되어 가는 새 성전에서의 성장을 꿈꾸며 여러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리고 1984년 4월 15일, 주일예배를 끝으로 31년간의 총무로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쳤다. 이처럼 새 성전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교회는 푸른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분명 주님의 꿈은 아니었으며, 결국 그 꿈들은 교회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총현교회에는 북한에서 월남한 성도들이 많았다. 김창인 목사 자신도 월남자였다. 그만큼 북한 선교에 대한 애착이 컸고, 1977년 4월에는 북한선교회를 조직하여 대대적으로 북한 선교에 집중하였다. 전국을 다니며 대중집회를 열어 북한 선교의 당위성을 알렸고, 귀순용사 위로예배 등 북한과 관련이 있는 모임들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북한선교회였지만, 인간들의 욕심으로 그 초심이 변질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교회의 지원과 독지가들의 헌납(불암산 부근의 30만평, 용산역 근처의 1,000평, 경기도 청평군 설악면 부근의 2만평) 등으로 북한선교회의 규모가 커져 사단법인으로 공식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선교회는 성도들이 헌납한 재산이 많아지면서 북한을 향한 선교보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재산을 헌납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헌납자와 북한선교회와의 법적 다툼이 생겨나 김창인 이사장의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결국 주님의 종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북한선교회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사퇴하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헌납한 수백억원 대의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한다고 요란했지만, 그때까지 북한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보내지 못했다.

1987년 정년을 앞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후임으로 당회는 1988년 4월에 이종윤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교회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교회 곳곳에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제1교육관을 ‘소석관’으로 명명하며 세운 소석비는 김창인 목사의 아호인 ‘소석’을 딴 기념비로 비문에 다음의 글귀를 새겨 넣었다. “...전 생애를 바치신 소석 김창인 목사의 남기신 신덕을 감사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교회설립 35주년에 즈음하여...” 회개·갱신·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시작한 홍해작전은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제3차 홍해작전 후에 교회 본당 앞에는 엄청난 큰 돌 성경이 만들어졌다. 화강암으로 된 돌 성경은 무게 22톤, 가로 4미터, 세로 2.6미터, 두께가 1미터 거대한 몸체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일부 성도들은 우상 앞에서 기도하듯 돌 성경 주위를 돌면서 절하고 기도하는 일까지 생겼다. 또한 1991년에는 비전 2000 운동을 전개하면서 ‘비전 2000 기념비’를 만들었다. 일명 시계탑으로 알려진 이 기념비는 지구를 안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총현인의 이상을 표현하여 무게 1.2톤, 높이 10미터, 총길이 15미터로 돌 성경 못지 않은 거대한 규모였다.

당시 진행된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돌 성경, 기념비 제작 등으로 분주하던 교회는 당회장과 관련한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교회는 오랜 동안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교인들은 분열되었고, 교회는 행정적으로 미비되었다. 새 당회장으로 신성종 목사가 청빙되었다. 신임 당회장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는 컸고, 당회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자진 근신을 결의하며 교회 부흥의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였다. 교회는 개인을 기념하기 위한 ‘소석관’을 원래의 명칭인 ‘교육관’으로 변경하고, 각 교구의 다락방도 구역으로 환원했다. 또한 교육관 앞에 세웠던 소석비를 비롯하여 교회 안팎의 무의미한 조각물들도 철거하였다.

한편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되자 교회의 장로들은 물론 교인들까지 충현교회의 성도라는 자긍심이 대단했다. 충현교회 당회장이 청와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당시 정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교회의 당회장실로 모여들었다. 이후 교회는 주님과 점점 멀어져 다시금 시련기로 접어들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등 교회 안팎의 행사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던 군선교,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축지원 등 외적으로 충현교회는 제2의 전성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는 또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겨야 했다. 사건의 전말을 다룬 1995년 10월 15일자 치리당회록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기 전과가 있는 ○○○ 씨는 당회장에게 접근하여 당시 부실한 재단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진 한 학교를 재건한다는 빌미로 교계의 중심 인물, 정치인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조직하게 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 일로 인하여 당회장은 사면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차례나 담임목사가 바뀌는 시련을 겪으며 교회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동안 수십 년에 걸쳐 충현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은 단순한 데 있었다.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 방법도 지극히 단순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진심어린 회개가 필요했고, 교회의 중심에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을 담임 목사가 두 명이나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주님은 교회에 매우 큰 시련을 주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몸 된 교회를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셨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1997~2008

십자가와 부흥

1997. 1. 1.

- 교구 개편으로 청년교구를 신설하다.(13개 대교구와 국제교구 등 총 19개 교구)
- 세례식 일정을 변경하다.(연 4회 실시)
- 초등 1·2부는 유년부로, 초등 3·4부는 초등부로, 초등 5·6부는 소년부로 통합되다.

1997. 5. 1.

정기당회에서 김성관 목사를 청빙후보로 결정하다.

당회원 출석 70명 : 김성관 목사 43표, 상대후보 16표, 무효 1표

1997. 5. 11.

'김성관 목사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공동의회에서 최종 청빙 결정을 하다.

총투표자 3,198명 : 찬성 2,758명, 반대 295명, 기권 145명

1997. 6. 6.

김성관 목사가 금요집회의 말씀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형식의 금요집회를 진행한다.

1997. 6. 12.

충현동산 관리등을 준공하다.

1997. 8. 21.

김성관 목사 충현교회 위임식 예배를 드리다.

1997. 8. 24.

주일 낮 5부 예배를 신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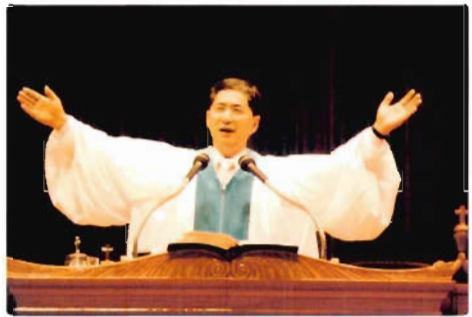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오후 3시에 드리다.

1997. 11. 1.

11월부터 한 달에 한 명씩 부목사들의 기도원 사역이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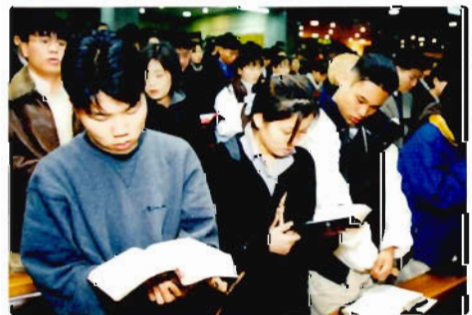
김성관 목사 충현교회 위임식



김성관 목사



세례식



젊은이들을 위한 주일 5부예배 신설

1997. 11. 12.

서만수, 육호기 선교사 해촉 및 지원을 중단하다.

1997. 12. 7.

새가정부와 예신부(예비신랑신부 교육부)가 병합하여 신흥가정부로 되다.

1998. 1. 1.

-1998년부터 홀수 달 첫 주일을 성찬식의 날로 정하고, 연 6회에 걸쳐 성찬예식을 거행하기로 하다.

-1998년부터 모든 구제는 현금 대신 생필품으로 하여 교회 구제방식에 변화를 주다.

-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함에 따라 예배 전 15분간 특별찬양을 시작하다.

1998. 8. 5.

총회가 인정한 평신도 단기선교사 훈련과정인 LMTC(Layman Missionary Training Course)를 신설하다.

1998. 9. 11.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던 충현어린이공원을 역삼동 666-2, 663-19, 20번지에 조성하다.

1998. 10. 14.

「교회 제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통하여 각 연령과 부서별 특성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제1, 제2, 제3 교육위원회로 분리하고, 교회의 5대 목표 중 다섯 번째 항목인 '지역사회봉사'를 '이웃 사랑'으로 표기하기로 하다.

1999. 3. 10.

교회 건물 전반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지 보수 계획을 세우다.



기도하는 청년들



성찬식



충현동산 관리동



전도

연

행

1999. 7. 7.

미국 거주 등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터키 김원호 협력선교사의 지원을 중단하다.

1999. 7. 21.

벤엘찬양대 수련회 중에 문성웅(대학부) 군이 사고사를 당하다.

1999. 8. 26.

충현복지관 준공예배를 드리다.

1998. 12. 5. 충현복지관 증축예배를 드림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다.

2000. 1. 17.

1월 17일 새벽 2시 경, 김성관 목사가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습당하다.

2000. 3. 28.

김정화 권사, 충현기도원 화요집회 직후 교회 버스 사고로 별세하다.

2000. 4. 5.

정기당회에서 장로 3인(마성락, 정하우, 송기홍)을 근신하기로 결의하다.

2000. 5. 6.

장학회 명칭을 '소석장학회'에서 '충현장학회'로 변경하다.

2000. 5. 10.

정기당회에서 임시당회(3. 22.)와 4월 정기당회를 통해 근신시킨 12명의 장로 중 1인(최성현)을 제외한 11인의 장로(윤명석, 마성락, 김차생, 우기전, 손동운, 정하우, 박승준, 송기홍, 강은원, 손경수, 이인상)를 정직시키기로 결의하다.



청지기훈련



충현장학회 장학금 수여



제2교육관 완공



제2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1부

2000. 5. 28.

제2교육관이 완공되다.

2000. 7. 6.

- 「교회재산관리 방안 추진위원」 선정 및 추진 계획을 결의하다.
- 정기당회에서 「충현교회 운영규정」 제정을 실시하기로 결의하다.

2000. 10. 11.

충현기도원 내 승용차와 버스를 구분하여 주차하도록 충현기도원 주차장을 신설하다.

2000. 11. 8.

정기당회에서 정직, 수찬 정지된 장로 8인(윤명식, 김차생, 강은원, 손동운, 우기전, 박승준, 손경수, 이인상)에 대한 제명 및 출교를 결의하다.

2000. 12. 31.

이준교 선교사의 사역을 종료하다.

2000. 12. 31.

- 2001년부터 협동목사제를 폐지하다.
- 2001년부터 주일에 행해지는 취사 금지를 공포하다.

2001. 1. 1.

크로마하프 연주대와 영어교육부가 폐지되다.

2001. 4. 8.

‘교회재정’은 각 부서의 먹는 일이 아닌,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하다.

2001. 5. 9.

- 치리당회에서 이동명, 김시주, 김규종 안수 집사와 정직 중에 있는 마성락, 세례교인 고문길을 치리, 제명 출교하기로 하다.
- 일본(유병세, 김철영), 호주(이기성), 불가리아(김아엘)의 평신도 선교사를 정리하다.

2001. 6. 30.

지교회 설립 방침에 따라 농어촌 교회 지원을 중단하다.

2001. 7. 4.

- 상조회 운영규정과 경조규정을 통합하여 「상조회 운영 지침」을 제정하다.
- 바른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다.
- 양로원 및 수양관 건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다.
- 충현동산 묘지 석축공사를 실시하다.

2001. 9. 23.

온전한 주일성수를 위하여 토요일 결혼 예식을 중지하다.

2001. 10. 17.

제1교육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면 개보수 공사를 2002. 6. 30까지 하다.

2001. 10. 28.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전임 찬양지휘자」를 초빙하다.

2002. 1. 17.

방만했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먹고 마시는 데에 소요했던 비용들을 모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여, 1,000명의 단기선교단을 출범시키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선교훈련(CMTC)을 실시하다.

2002. 7. 28.

교회 식당 보수공사를 하다.

2002. 9. 10.

본당 1층에 있던 유아원을 교육관 1층으로 이전·확장하여 충현어린이집 개원예배를 드리다.

2002. 12. 15.

본당 1층에 24시간 개방 기도실을 운영하다.

2003. 1. 1.

충현동산 묘봉을 평토장(平土葬)으로 하다.

2003. 5. 7.

「노인복지시설 건립 소위원회」를 조직하다.

2004. 1. 1.

장로, 안수집사, 권사 24시간 기도를 실시하다.

2004. 3. 10.

서리집사 후보의 선정 기준을 만 27세 이상 된 남·녀에서, 남자는 만 25세, 여자는 만 23세 이상으로 하고, 권찰은 만 25세 이상 된 여자에서 만 23세 이상 된 여자로 「교회운영 규정」을 개정하다.

2004. 4. 14.

- 「교회 설계 도면 및 서류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하기로 하다.
- 「교회 건물 유지관리, 보수 종합계획」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다.

2004. 10. 18.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정관 변경하다.

2005. 1. 9.

교회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조정되다.

2006. 1. 1.

- 본당 강단 휘장성구를 교체하다.(마 4:17, 16:24)
- 충현동산 묘봉을 평토장으로 하고, 충현동산 묘적부를 일제 정리하다.

2006. 4. 30.

제1교육관 7층에 초·중 도서관을 개관하다.



본당 강단 휘장 성구 교체



충현동산 평토장



초·중 도서관 개관(제1교육관 7층)

2006. 7. 5.

정기당회에서 김성관 목사 피습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다.

2000년에 발생한 당회장 목사 피습사건의 주범인 최관용이 미국으로 도피 중 사기 행각으로 검거돼 국내 검

찰로 압송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측의 요청으로 기소 중지중인 본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다.

2007. 1. 5.

65세 이상의 대원들로 구성되 예루살렘 찬양대가 금요집회 시 찬양을 담당하다.



예루살렘 찬양대

2007. 1. 21.

영·유아 도서실을 개관하다.(제1교육관 7층)

2007. 3. 20.

본당 외벽 석재 보수공사를 2008. 6.까지 실시하다.



영·유아 도서실

2007. 4. 15.

교구위원회가 제1교구위원회(1~12교구), 제2교구위원회(13~24교구)로 확대 개편되다.

2007. 10. 17.

제3교육위원회 내에 장년4부를 신설하다.



충현기도원 루디아관과 엘림관

2008. 1. 1.

성경과 찬송가를 「개역개정 성경」과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다.

2008. 11. 20.

충현기도원에 다목적 체육시설인 루디아관과 콘도식 숙박시설인 엘림관을 개관하다.



본당

시
나

자

가

와

부
호

새 성전에 입당한 지 십여 년이 흘렀지만 교회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는 새로운 조직과 더 나은 계획과 행사들을 꾸준히 해 왔지만 중요한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다시 교회 설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53년 9월, 한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충현교회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였다. 순간마다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교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치료해 주셨다. 그러나 문제는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매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교회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구하였고,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려 할 뿐이었다. 결국 교회가 그토록 외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구제불능의 병마에 시달렸다.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모두 회개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교회는 연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교회는 연속되는 시련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간 교회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피게 되었고,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 그럼에도 교회는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외적인 실력만을 중시하였고, 이전과는 달리 후임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남은 후보자는 2인이었다. 1997년 5월 1일, 당회에서는 당회장 후보 결정투표에 앞서 선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1차 투표에서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3차 투표까지 할 것을 결의하였다. 두 후보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에서 총투표자수 70명 중 김성관 목사 43표, 상대후보 26표, 무효 1표로, 2/3 선인 47표에 4표가 부족하였다. 2차 투표에서 김성관 목사 52표, 상대후보 16표, 무효 2표로, 2/3선 이상을 득표한 김성관 목사가 청빙되었다. 이후 1997년 5월 11일, 주일 4부예배 후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김성관 목사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투표한 결과 총 3,198명 중에 찬성 2,758명, 반대 295명, 기권 145명으로 찬성이 2/3를 넘어 최종 청빙이 결정되었다.

당시 목회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김성관 목사가 충현교회 당회장으로 청빙된 것은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충현교회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은총의 기회였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김성관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분명했다. 아니 거창하게 목회 철학이라 할 것도 없이 김성관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되었으며, 모든 전통과 형

식을 버리고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예수님과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단순 명료한 그의 메시지는 강단과 목양에 그대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롭게 거듭날 교회를 거부하는 십자가의 원수(빌 3:18)들은 최후의 계락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오직 십자가 복음 중심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김성관 목사의 축출이었다. 2000년 1월 17일, 새벽 2시 경에 괴한들이 김성관 목사의 사택에 침입하였다. 폭력 전문가였던 그들은 거의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김성관 목사에게 가하였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당회 서기 등 지인들을 살인하겠다고 협박했다.

피습의 목적은 당회장의 퇴진이었다. 2000년 3월 22일의 치리당회록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장로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도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오직 한 명의 장로만이 회개하며 “제가 어리석고 단순하고 우둔하여 목사님께 그리고 충현교회에 너무나 큰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 외의 장로들은 소명의 기회를 통해 자진 근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회는 받기로 하였다. 결국 2000년 3월 22일, 치리당회에서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습사건 관련자 9인의 근신을 결정하였고, 근신 기간 중에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에 준한 행동을 할 경우 제명 출교할 것을 경고하였다.

치리당회를 폐회하기 전 피습사건의 피해자인 김성관 목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회개가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나도 잘못이 많지만 그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거짓말하면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당시 김성관 목사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으며,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였다.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도 김성관 목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를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발송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고인이 된 장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교회는 2000년 11월 8일, 치리당회를 열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8인의 장로를 제명 출교하였다(당회원 재적 62명 중 57명 참석).

심
상

자

가

와

부
호

김성관 목사 피습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습사건의 주범은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연루자 가운데 한 장로는 사건 발생 두 달 후 급사하여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가 중지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피습사건의 행동주범이 미국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압송되어 피습사건의 조사가 검찰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이에 관한 재판 중 검사측 증인으로 본 교회의 장로 세 명이 증언하였고, 피습사건 당시 연루되었다고 거론된 모 장로가 피고인측 증인으로 섰다. 이후 피습사건의 주범은 사법 처리되었다.

1999년 “여름에는 물가에 절대 가지 말라.”는 당회장과 당회의 방침을 무시한 대학부의 여름수련회 기간 중 한 명의 대학생이 익사하였고, 2000년 1월 17일에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당회장을 퇴진시키기 위하여 교회의 핵심 장로들이 결탁하여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습한 당회장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해 3월에는 충청기도원에서 화요일 집회 후 권사 한 명이 교회버스에 치여 사망하였고, 9월에는 본당에 비둘기집 제거 공사를 하던 중 인부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교회는 다시 한 번 당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징계 그리고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였다. 충청교회에서 그토록 멀리받던 예수님과 십자가가 이때부터 교회의 중심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예배가 진실로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시작 15분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구하였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교회광고를 하였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매년 홀수 달, 첫 주일에 드리기로 하였다(성금요일 성찬식 포함하여 총 7회). 매년 세 차례 열리는 청지기훈련은 전교인을 위한 복음의 잔치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특히 금요찬양집회는 65세 이상의 성도로 새롭게 조직된 예루살렘 찬양대의 동참으로 더욱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해졌다. 2001년 4월 8일에 교회는 “교회재정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만 사용한다”는 것을 천명하며, 그동안 많은 불협화음을 내던 장기선교사를 과감히 정리하였다. 이후 모든 성도의 사도행 전적인 단기선교사 운동을 전개하여 세계 선교에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일었다. 또한 당시 병폐가 심각했던 장기선교사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였다. 이는 선교에 대한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는 믿음의 결정이었다. 결국 교회는 일심으로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사도행 전적인 선교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교회는 철저히 선교훈련(CMTC)을 거친 단기선교사만을 파송하였으며, 어린 중학생에

서부터 여든이 넘는 어르신들까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단기선교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단기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인 전도가 필수사항으로, 민족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총력 교회주변 전도와 1·1·1(1인이 1년에 1명) 전도를 통해서 순수한 국내전도, 「민족복음화」에 마음을 모았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의 조직도 더욱 강화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총 5단계의 교재를 가지고 주일이면 1~5부 주일예배와 모든 교회학교 및 각 부서의 집회에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였다. 인간의 이름을 기념하던 소석장학회를 충현장학회로 변경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매년 500여 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시설 확충 및 보수는 물론이거니와 충현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인 제2교육관, 어린이들을 위한 충현어린이집, 영·유·초·중도서실 등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열어 주는데 교회는 집중하였다.

특히 충현어린이집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타 어린이집에 비해 월등히 앞선 시설을 구비하였다. 처음에는 정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실 3개, 유아원 사무실, 조리실과 식당, 유아 전용 화장실과 목욕실을 구비하였으나 이후 거듭 리모델링을 하여 정원 104명, 보육실 8개 반, 교재교구실을 추가로 구비하였다. 강남구에서 실시한 보육시설 정기지도 결과, 충현어린이집은 우수 시설(2002, 2004년)로 연속 선정되었다. 최근 2008년에는 「국가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에 기초한 교육을 하기 위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 또한 「이웃 사랑」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충현복지관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충현복지관도 아픔을 겪었다. 개인의 명예와 욕심으로 가득한 일부 직원들이 재단의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국내 복지관 사상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분규를 일으켰다. 그러나 당시 충현복지관 운영을 면밀히 파악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그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매우 놀랐다. 전혀 문제가 될 소지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스스로 물러났고, 노조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이를 계기로 충현복지관은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었다.

1997년 이후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하던 충현교회를 향한 악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단련되었고, 그 누구도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영적 부흥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웠다. 수십 년의 세월로 굳어질대로 굳어진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다.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 하에 은밀히 자행되어 온 모든 전통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맥없이 무

십
자
가
와
부
흥

너졌다. 강단에서는 ‘회개’와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었고, 이에 교회의 기초에 자리잡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십자가의 승리였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주님의 교회는 웅장한 교회 건물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 사명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것들을 충현교회는 교회를 설립한 지 반 세기가 지나서야 깨달았다.

이제 충현교회는 더 이상 ‘충현’이라는 교회명을 자랑하지 않는다. 웅장한 교회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다. 이전의 화려했던 교회의 역사나 건물을 중시하지 않는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여전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충현교회임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된 충현의 성도들은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부 록

총현교회 목표의 변천
총현교회 5대 목표 해설
2009 당회원

충현교회 목표의 변천

1963년

1. 천국 일꾼을 키우자

1968년

1. 천국 일꾼을 키우자
2. 북한선교를 하자
3. 민족 복음화를 하자
4. 새 교회당을 건축하자
5. 세계 선교를 하자

1977년

1. 예수님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
4.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1978년

1. 예수님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82년

1. 천국일꾼 양성
2. 북한 선교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성전 건축

1989년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1992년

1. 천국 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1993년

1. 천국 일꾼을 키우자
2.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3.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4.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1994년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지역사회 봉사

1999년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이웃 사랑

충현교회 5대 목표 해설

주님이 주신 5대 목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령에 새긴다

1. 신령한 예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구속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토록 해야 할 것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준비된 말씀 선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드러지며, 특히 5부 예배는 젊은이들 중심의 예배로 드리고 있다. 주일찬양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은혜를 체험하며 주간에도 매일 새벽기도회와 수요 1·2부예배, 금요찬양집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모든 예배는 예배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되며 복음 중심의 말씀과 영광의 찬송을 통해 예배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고 있다. 8개 찬양대와 2개 연주대의 섬김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찬양의 제사가 되고 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1시간)

- 1부예배 : 07:00
- 2부예배 : 09:00
- 3부예배 :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영어, 중국어, 일어 및 수화)
- 4부예배 : 13:00, 외국어 동시 통역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 5부예배 : 15: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② 주일찬양예배(1시간) · 17:00

③ 수요일예배(1시간) · 1부 11:00 · 2부 19:00(하절기 19:30)

④ 금요찬양집회(2시간) · 금요일 19:00(하절기 19:30)

⑤ 새벽기도회(30분) · 매일 새벽 5:00

2) 신령한 예배를 위한 준비

① 모든 성도는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예배실에 착석

② 예배위원회 주관

· 예배위원과 헌금위원은 예배 시작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

③ 찬양위원회 주관

· 찬양위원회에 소속된 6개의 찬양대인 1부: 가브리엘, 2부: 임마누엘, 3부: 할렐루야, 4부: 아멘, 5부: 벨엘(대학부), 예본(고등부)과 금요찬양집회를 위한 예루살렘찬양대가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위한 찬양 준비

④ 장로회 주관

· 월요새벽기도회 및 주일예배 시 기도

· 24시간 연속 기도

⑤ 집사회 주관

· 새벽기도회 및 주일찬양예배 시 기도

· 24시간 연속기도(24시간 연속하여 릴레이로 1시간씩 기도)

⑥ 권사회 주관

· 수요일부 및 2부예배 시 기도

· 24시간 연속기도(24시간 연속하여 릴레이로 1시간씩 기도)

3) 성찬식(매년 7회)

· 격월(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첫째 주일 1부~5부예배 시 실시

·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금요찬양집회 시 실시

4) 총현기도원 집회(매주 2회)

· 화요일집회 : 11:00

· 금요일집회 : 23:00

2. 천국일꾼 양성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천국일꾼 양성”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전 4:1). 천국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은혜를 나누며 가르치고 있다.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천국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성된 천국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

충현교회 교회학교는 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연령에 따라 23개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3개 교육위원회로 조직되어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전담교역자와 헌신된 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복음으로 하나되고 있다. 23개 교회학교는 매 주일마다 하나로 통일된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교회학교

① 부서 및 조직

- 23개 부서와 3개의 교육위원회로 조직
 - 각 부서는 연령과 특수한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 교육위원회 및 부서 분류
 - 제1교육위원회(9개) : 영아부(만 2세 이하), 유아부(만 3세~4세), 유치부(만 5세~6세)
 - 유년부(초등 1~2학년), 초등부(초등 3~4학년), 소년부(초등 5~6학년)
 - 중등1부(중학 1년), 중등2부(중학 2년), 중등3부(중학 3년)
 - 제2교육위원회(4개) :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35세 이하 미혼), 청년2부(40세 이하 기혼)
 - 제3교육위원회(10개) : 장년1부(50세 이하), 장년2부(60세 이하), 장년3부(70세 이하)
 - 장년4부(75세 이하), 소망부(76세 이상), 사랑부(지적장애인)
 - 에바다부(청각장애인), 탁아부, 새가족등록실, 새가족양육부

② 운영

- 23개 교회학교는 매 주일마다 하나로 통일된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교회와 기도원에서 계절학교 2회 실시
- 계절학교를 위한 교사강습회 개최

2) 충현장학생 선발

- 매년 2월과 8월에 2회 선발
- 매년 450명 이상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3) 교재연구 및 개발

- 각 부서에 필요한 복음적인 교재인 「충현의 만나」 제작
- 1단계 교재(유아·유치·유년·사랑·에바다부) / 2단계 교재(초등·소년·사랑·에바다부)
- 3단계 교재(중등·고등부) / 4단계 교재(대학·청년부) / 5단계 교재(교구)

4) 충현어린이집

-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매일(월~토), 3~7세의 어린이들을 교육
-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사들과 원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
-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면에서 우수하여 여러 차례 수상

5) 청지기 훈련

- 매년 2월, 6월, 10월 중 3회 실시
- 전교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말씀의 잔치

3. 민족 복음화

“가족과 이웃들, 사회와 민족이 십자가로 하나되는 민족 복음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막 1:38).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인간이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일이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미련한 전도의 방법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의 마음으로 민족을 향해 외쳐야 한

다.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영적 잠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민족의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이 참 길, 진리, 생명이심을 외쳐야 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특히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속적인 전도방법과 물량을 동원하지 않고 126개 전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죽어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교회 주변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교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땅의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순간까지 전도는 계속될 것이다.

1) 전도회

① 구성 : 24개 교구 7개 전도회로 구성, 전체 168개 전도회 구성

- | | |
|-------------------------|-------------------------|
| · 바울 전도회 : 남자 만 60세 이상 | · 한나 전도회 : 여자 만 65세 이상 |
| · 베드로 전도회 : 남자 만 46~56세 | · 루디아 전도회 : 여자 만 46~55세 |
| · 요한 전도회 : 남자 만 30~45세 | · 에스더 전도회 : 여자 만 56~64세 |
| | · 마리아 전도회 : 여자 만 30~45세 |

② 운영

- 1·1·1 전도 : 성도 1인이 1년에 1명씩 전도하여 교회 등록 후 관리, 양육, 교회 정착
- 총력 교회주변 전도
 - 여전도회 중심 : 매달 둘째 주일 후의 수요일, 구역장 영성훈련 후 실시
 - 남전도회 중심 : 매달 둘째 주일 후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

2) 총현전도대 훈련

- 집중 훈련 : 4월~5월까지 매주 1시간씩 10회 실시
- 일반 훈련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

4. 세계 선교

“온 땅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다. 따라서 선교는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선교를 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에서부터 거동이 어려운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단기선교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으며 초대교회가 실천한 성경적 선교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만 의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단기선교를 계속하여 행할 것이다.

C.M.T.C.는 충현교회 선교훈련과정(Choonghyun Missionary Training Course)의 약자로서 단기선교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준비된 교육과정이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충현교회 선교정책,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 타종교 이해, 권역별 사례발표 등의 과목들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 훈련을 하고 있다. 모든 충현교회 단기선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오직 복음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영적훈련과 언어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선교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선교부는 성도 중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섬기는 부서이다.

1) 단기선교 실시

① 구성

- 25개 교구(1~24교구 : 일반교구로 총 173개 지역, 25교구 : 사랑부, 에바다부, 외선부)와 위원회,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팀 구성.
(교육위원회 소속은 중등1부 연령 이상 참여 가능)

② 파송

- 1998년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약 11년간 총 39개국에 11,729명

③ 훈련

- CMTC 훈련 : 매월 1주, 2주에 걸쳐 실시

- 팀장 훈련
- 팀별 훈련 : 선교기도회(6회), 영성훈련(3회), 팀 자체훈련(12회) → 총 21회 팀 훈련

④ 심사

- 총 4차 심사를 통해 파송
(1차 : 팀장 및 총무심사, 2차 : 영성심사, 3차 : 언어심사, 4차 : 팀원 및 전도실습심사)

2)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역자 · 선교사 준비생 양육 상황

① 선교사

- 송요한(최리다, 엘리사벳, 안나, 마리아) / 생명의길교회 개척교회
- 알렉 전도사 / 스크비라교회, 데이빗 전도사 / 우크라이나교회
- 안드레이, 나타샤 전도사 / 오차꼬보교회

② 현지인 선교사역자

- 스테반 · 라리사 부부 / 은혜의약속교회
- 발진암 · 베갈마 부부 / 새생명교회
- 바트게렐 / 승리교회 자르갈 / 선한목자교회
- 신재금 / 참빛하늘나라교회 굴노자 / 교회 개척중

③ 선교사 준비생

- 배지마

3) 평신도 단기선교사 파송

자원자에 한해 약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인 1조가 되어 원하는 국가로 3개월간 사역

4) 국내 외국인선교부(외선부) 운영

매주일 11:00, 아멘홀

5) 의료선교부

매주일 14:00~16:00, 제1교육관 2층 의료선교부실

5. 이웃 사랑

“소외받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 사랑”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산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형제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뜻이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게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한다. 외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인 친교는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친교가 아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이다. 말씀 안에서 나누는 친교, 또한 자원봉사 속에서 나누는 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부를 통해서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전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단순한 구제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총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고 있다.

1) 총현복지관 운영

- 1995년부터 시작된 총현복지관을 통한 이웃 사랑의 실천
- 지적장애인들에게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서 복음 증거의 통로 역할

2) 구제

- 특별 구제, 일반 구제, 성탄 구제로 구분하여 매월 약 200세대에게 쌀과 부식으로 구제
-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혹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 구호, 특별 구제

3) 노인 복지를 위한 준비

- 양로원 및 자연장, 납골 시설 건립 추진 중

2009 당회원



당회장
김성관



당회서기
노광현



당회부서기
김태식



노광현



이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이종석



임무천



진홍웅



전홍렬



김단웅



한승규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안동현



황 의 만



김 구 형



최 윤 덕



이 계 인



박 덕 앙



이 태 식



박 홍 규



권 명 옥



조 종 환



배 춘 식



김 영 달



이 실 호



최 지 운



노 영 한



박 철 구



정 청 길



신 상 수



고 제 승



강 철 형



김 영 은



이 달 옥



장 철 환 A



김 승 곤



함 철 주



윤 석 민



정 선 현



안 석 현



김 연 군



김 창 국



김 중 선



임 창 식



진 학 래



김 신 국



전 계 식



장 승 규



전 은 배



석 영 식



구 재 완



송 두 섭



유 상 태



박 상 대



김 규 석



신 광 철



정 창 수



엄 복 섭



이 상 석



오 순 도



양 기 수



김 태 식



김 철 환



김 연 태



김 중 훈



장 철 환 B



정 태 동



이 세 영



이 성 섭



장 철 규



이 보 신



이 상 해



김 성 호



조 중 민



이 호 일



추 병 창



최 세 진



김 홍 기



박 광 식



류 기 명



박 성 명



이 상 복



지 규 성



박 중 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55년사

발행일 | 2009. 6.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발행처 |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